國家의 棟梁되라

朴議長, 在美留學生에 書翰

박(朴正熙)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재미(在美) 유학생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통하여 『해외에서 학업에 정진하여 국가민족의 중흥에 많이 이바지하라』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메세지」에서 『우리민족의 장학관계자들은 여러분의 두뇌를 국가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러분은 귀국후 학업을 마치는 대로 조국의 부름에 응하여 국가민족의 중흥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박 의장은 또 「메세지」에서 『여러분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학업에 정진하라』고 당부하였다.

24日까지 延長

國展作品搬入期日

【北朴】 미와진 사람검사물 하기위해 이곳에 출장온 부산검찰청 검사 이(李相朝) 씨는 십일밤 十一시경 金에 일행 十二명은 구마시 시내 모 요정에서 송별연을 베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일행 중 구마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한명과 시비를 벌리게 되어 이 경찰관을 구타하여 전치 二주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別로 크지 않은 듯

14日까지 決定안되면 公訴權消滅

高法務 電友會事件에言明

十三일상오 고(高元) 법무장관은 전국무장검사 二十명의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하오 본부 十명 회의실에서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및 전무 등 간부 五명에 대한 소위 전력주식회사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는 오는 十四일까지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 법무장관은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및 전무 등 간부 五명에 대한 소위 전력주식회사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는 오는 十四일까지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은 감찰위원회의 고발한것으로 『특정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十四일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고 법무장관은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감찰위원회의 고발한것으로 『특정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十四일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고 법무장관은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全璋漢에五年宣告

金鶴應·尹勝九엔 執猶

十三일상오 서울형사지방법원 제二형사부(재판장 김영두 판사)에서는 지난 八월 二十四일 국회 재경위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증권파동 조사를 위한 증인으로 출석한 증권업계 거물 全璋漢(전장한) 피고인(64·求刑七年)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五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전 재무차관 金仁洪(김인홍)=61·求刑一年)에게 징역 二년에 三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제四조를 적용, 전기와 같은 양형을 선고했는데 김(金鶴應) 등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세피고인은 이날 증인으로 석방된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전 도지사로서 집행유예선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巡警에도 暴行

出張온 鐵道局員 술에취해 脫線

【北朴】 미와진 사람검사물 하기위해 이곳에 출장온 부산검찰청 검사 이(李相朝) 씨는 십일밤 十一시경 金에 일행 十二명은 구마시 시내 모 요정에서 송별연을 베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일행 중 구마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한명과 시비를 벌리게 되어 이 경찰관을 구타하여 전치 二주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海印寺 慶州 浮石寺 丹陽
觀光會 開催
京鄕新聞社 主催
交通部 後援
一、期日 十月二十一日二時서울驛出發 十月二十四日二時濟州飛到着 (三泊四日)
一、人員 約八〇名 (一般募集)
一、費用 一般上級 五六、〇〇〇圓 (但滿員時는 開時마감함)
※二等提案三號、食堂車로 特別觀光列車를 列用하는 유치이는놓쳐! 特別觀光列車를 列用하는 京鄕新聞社는부산시동광동 ▲이철=五十五개▲작업복=五十五착▲교의(高衣)=九명)에대하여마음대로 골라주십시오 ▲대금은 전국주요역에서 교부합니다 ▲대금은 전국주요역에서 교부합니다 ▲대금은 전국주요역에서 교부합니다